

새롭게 조명되는 한국漢文學

국역 및 연구서 출판 활기...대중적 차원으로 개방돼야

한국한문학에 관한 연구 및

번역이 최근 활기를 띠고 있다.

아직 그 전모를 포괄할 만큼

흡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반독자를 겨냥한 연구서나 번역물이

다양하게 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번역의 목록이 극히 제한적이거나

대다수의 연구들이 투박한

고답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한문학 유산을 온전히 우리것으로

소화하기 위해 지양돼야 할

과제로 남는다.

한문으로 씌어진 선인들의 문학작품, 곧 한국漢文學이 오늘날 우리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어떤 것이며, 그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최근 한국한문학에 대한 연구와 원전번역이 점차 활기를 띠는 추세에 있다. 국문학의 그것에 비해 물론 두드러진 현상은 아니지만, 한국한문학이 중국한문학의 단순한 주변장르일 수 없다는 인식과, 그래서 한문학도 우리 문학의 당당한 유산이라는 인식이 구체적인 연구와 번역으로 표현되고 있다. 예컨대, 그간 학자들의 연구실 속에서만 이루어졌던 한문학 연구성과가 출판이라는 개방회로를 통해 일반독자들에게까지 폭넓게 제공되고 있는가 하면, 한문학사의 맥락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작가와 작품들도 연이어 번역되고 있다. 문학사 서술에 있어서도, 종래처럼 학문을 국문학사에 단순히 편입시키는 차원을 넘어서서 보다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는 문학사의 출현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현상을 혹자의 표현대로 '한문학의 르네상스'라고 이르기에는 아직 성급한 감이 있지만, 그러나 국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됐던 저간의 사정을 상기할 때 한국한문학에 대한 최근의 제고된 관심은 충분히 주목에 값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결코 버릴 수 없는 문화유산에 대해 다시금 눈 돌리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아울러, 그런 눈돌림을 통해 한문문학 곧 고전문학, 국문학 곧 근대문학식의 단절론이 극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신사의 맥락을 비로소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최근의 한국한문학에 대한 연구와 번역이 흡족할 만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한국한문학의 의의를 제대로 살리기에는 최근의 연구와 번역은 아직 부분적이다. 연구의 넓이와 깊이에서나 혹은 번역의 목록에서나 그것은 보다 확충돼야 한다.

한문학도 우리 문학의 당당한 유산

한문학의 창작사는 종결되었지만, 한문학의 연구사는 계속해서 우리 민족문화 연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문학의 한 양식으로서의 한문학의 문예적 창작은 이제 무의미해졌지만,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한문학의 학술적 연구는 여전히 큰 의미를 갖는다. 오히려, 한문학의 학술적 연구는 그동안 우리의 문학연구가 未踏地로 남겨 놓았던 부분을 새롭게 조명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갖는 작업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한문학의 이런 의미가 제대로 존중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일제시대에 씌어진 天台山人의 「朝鮮小說史」나 해방 후에 나온 趙潤濟의 「國文學史」에 한문학 부분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대개 그것들은 한문학을 국문학의 '변방'으로 처리하고 있다. 특히, 조운제의 「국문학사」는 고려시대 한문학의 발달을 국문학의 위축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기도 하다. 50년대 말에 나온 李秉岐, 白鐵 공저의 「國文學史」 역시 한문학에 대한 배려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른바 「國漢文學史」를 따로 부록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후 최근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에서 한문학이 국문학사 서술에 유기적으로 통합되기까지 대부분의 문학사에서 한문학의 존재는 아예 무시되거나 극히 소략하게 소개될 뿐이었다.

개별 연구서에 있어서도 한문학연구의 기념비적 저작으로 꼽히는 李家源의 「燕巖小說研究」(을유문화사, 1965) 등을 빼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연구도서는 드문 편이다. 그러나 「梅月堂 金時習研究」(鄭鉉東 신이사,

1965), 「高麗朝 漢文學研究」(徐首生 형설출판사, 1971), 「韓國漢詩論」(李又載, 한국교육문화원, 1975) 등이 70년대까지의 한국한문학 연구의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 점차 양상이 바뀌고 있다. 우선, 70년대 이후 축적된 한문학 전문연구 인력들에 의한 연구성과들이 속속 출판되고 있다. 그 대부분이 학위논문들을 수정, 증보한 것으로서 일반독자가 접하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예컨대 「茶山 丁若鏞 研究」(김상홍, 단대출판부, 1985), 「韓國古典批評研究」(진형태, 책세상, 1987), 「夢遊小說研究」(유종국, 아세아문화사, 1987), 「高麗時代 詩話批評研究」(장홍재, 아세아문화사, 1987), 「崔致遠의 詩精神 研究」(성학희, 관동출판사, 1988), 「韓國擬人小說研究」(김광순, 새문사, 1988), 「許蘭雪軒의 詩論」(이숙희, 새문사, 1988), 「許蘭雪軒의 文學」(김명희, 김문당, 1988) 등이 가장 최근의 한문학 연구성과로 꼽힌다.

학위논문적인 성격이 짙은 위의 책들에 비해 보다 대중적 수준에서 씌어진 것들로는 「蛟山 許筠」(허경진, 평민사, 1986), 「韓國漢詩의 理解」(이병주, 민음사, 1987)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후자는 삼국시대 이후 한말에 이르기까지의 시와 시화를 통시적으로 해설하고 있어 일반독자들의 한시 이해에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다.

그밖에 조선후기의 한문학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논문을 모은 「李朝後期漢文學의 再照明」(김명호 외, 창작과 비평사, 1983)을 비롯해 개인 연구저서로서 「韓國文學史의 視角」(임형택, 창작과 비평사, 1984) 등이 학위논문의 투박한 고답성을 벗어나고 있어 비교적 일반독자의 접근이 용이한 편이다.

대중적 수준에서 씌어진 책들 늘어나

번역서에 있어서도 사정은 대개 비슷하게 나타난다. 80년대 이전까지의 한국 한문학 번역 및 주석은 을유문고의 「李朝名人詩選」(황병국 편역), 정음문고의 「金笠詩選」(박용구 편역), 서문문고의 「韓國漢文小說選」(이민수 편역) 등에서 보듯 대개 형태상으로는 문고본의 한 목록을 이루고 있고, 내용상으로는 선집의 성격을 띠고 있다.

예외적으로는 민족문화추진회와 정신문화

연구원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고전 국역이 있다. 그러나, 이들 두 기관에서 간행된 국역 고전은 그것의 한문학적 가치보다는 文·史·哲을 포괄하는 고전으로서의 가치에 보다 치중돼 있고, 일반에게 널리 보급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문학에 대한 최근의 제고된 관심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전하는 우리나라 漢籍들의 체계적인 번역사업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문학작품의 번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위의 문고본 번역서들과 더불어, 「李朝漢文短篇集」(이우성 편역 일조각, 1978)이나 「退溪詩譯注」(이가원, 정음사, 1987) 등 본격적인 번역 및 주석서들도 비록 간헐적이거나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현대감각에 맞는 유려한 우리말로 번역된 한문학작품집들도 다수 눈에 띈다. 예컨대 茶山의 시를 가려뽑아 번역한 「哀絕陽」(박석무 편역, 시인사, 1983) 이라든가 黃玿의 絶命詩를 모은 「목숨을 끊으며」(허경진 편역, 동천사, 1987), 許筠의 산문을 모은 「時代 앞에 서서」(허경진 편역, 책세상, 1988)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뒤의 두 책을 편역한 허경진교수(목원대)는 최근 가장 활발한 한문학 번역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말까지 「韓國의 漢時」시리즈(평민사)를 통해 李奎報, 金時習, 許筠, 丁若鏞, 李齊賢, 權石洲, 許蘭雪軒, 梅窓, 王峰, 竹西 등의 시선집을 연속 번역해내고 있다. 그리고, 이들 번역서는 한문학작품을 번역할 때 흔히 드러나는 擬古의 문투를 극복하고 있어 현대독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특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 모두를 다 포함하더라도 아직 한문학작품의 번역은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茶山을 비롯해 일부 특정작가와 작품만이 중복번역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컨대, 멀리는 최치원이나 이규보를 비롯해, 조선 전기의 김시습과 서거정, 그리고 중기 이후의 허균, 정약용, 박지원 등의 작품들만이 중점적으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작가의 작품이 한문학사상 특별히 의미있거나, 혹은 오늘의 우리 상황에 비추어 현재적 의미를 강하게 갖는다는 사정의 반영일 수도 있겠지만, 바다의 광대함으로까지 비유되는 한문학 유산의 전체규모를 생각할



한국한문학 관계 번역서 및 연구서를 최근 들어 일반독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 수준의 책이 점차 늘고 있다.

때 턱없이 좁은 범위에서의 번역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한문학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난다.

연구 및 번역의 범위 협소해

최근 점차 활기를 띠고 있는 한문학에 대한 연구와 번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며, 그래서 시급히 지양해야 할 바는 연구와 번역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점이다. 번역에서는 앞서도 들었듯이 일부 작가와 특정 작품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연구에 있어서도 번역의 대상이 된 작가와 작품을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한편으로는 새로운 작가와 작품이 꾸준히 발굴되면서 한문학 연구의 부피를 두둑하게 하고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발굴이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오기는 아직 이른 상태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의 한문학 연구는 보다 다양하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

가령, 현재 우리의 한문학 연구는 흔히는 이규보나 김시습, 정약용, 박지원 등의 작가론 주위를 맴돌거나, 假傳體 소설, 稗官文學, 詩話批評, 그리고 實學과 관련된 한문학의 언저리를 서성대는 형편인데, 이는 우리 한문학 유산의 온전한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 시급히 지양되어야 할 바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젊은 연구자들에 의해 기왕의 한문학 연구대상과 범위들이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 이런 사정의 상당부분이 호전될 전망이다. 1981년

이후의 국어국문학분야 박사학위 논문목록을 살펴보다라도 한문학관계 논문들에 柳得恭, 林白湖, 申緯, 鄭澈의 漢詩에 대한 연구 및 士林派문학에 대한 연구들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다음 문제는 이런 연구성과들이 전문학자들만의 전유물로 그치지 않고 대중적으로 널리 개방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한문학 연구 특유의 투박한 고답성을 탈피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한문학 연구서의 대부분이 보이는 것 같은, 연구의 대상이 된 텍스트의 의고적 문투가 연구서에도 여전히 수용된다면 한문학 연구성과의 대중적 개방은 요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방법론의 새로운 개발과 적용 또한 한문학 연구성과를 풍요롭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 지난 1985년 10월 개최된 제1회 전국한문학대회에서 한국한문학회 회장 李佑成교수는 「한국한문학연구의 회고와 전망」이란 기조강연을 통해 특히 이 방법론의 문제를 강조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80년대 이후 활기를 띠고 있는 한문학 연구가 역사과학적 방법론에 크게 기쁨으로써 화석화됐던 한문학 유산들을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작품으로 되살려 놓는 데 기여했지만, 그것으로의 지나친 편향은 연구성과의 동어 반복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런 역사과학적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미학적 방법론의

다양한 개발이 한문학 연구의 진전을 위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우성교수의 말이다.

다양한 방법론 개발 필요

한편, 번역에 있어서 흔히 제기되는 것으로는 선부른 오역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한문문장의 경우 띄어읽기의 分節에 따라 그 의미가 판이해지는 수가 많고, 한문학 특유의 풍부한 典故를 이해하지 못할 때도 전혀 엉뚱한 번역이 나오게 돼 오역의 함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국한문학 번역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원로사학자이자 한문학자인 李載浩교수는 「정신문화연구」 제34호에 기고한 「한국학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오역의 실례를 일일이 적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중국의 경전을 포함한 한문학 고전의 번역에서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은 故事나 出典에 대한 이해부족에 있다는 지적이다. 그밖에도, 심지어는 원문과는 반대되는 번역으로 큰 혼란을 빚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인데, 특히 한문학관계 석·박사 학위논문에도 원전오독의 오류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오독에 근거한 연구가 어떤 합당한 연구성과를 도출해내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이의 개선을 위해 이재호교수는 한문학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한문학자의 양성은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인 정수를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각대학의 4년 과정이나 민족문화추진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2~3년 과정의 단기 강좌보다는 국가기관에서 박사과정 정도의 장기과정을 실시, 전문학자를 집중양성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굳이 이재호교수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한문학 연구와 번역의 근간이 되는 인력을 충원할 교육기관이 현재 질적으로나 수적으로 크게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대학의 경우 한문학 관련학과는 고려대, 동국대, 충남대의 한문학과를 비롯, 강원대, 계명대, 단국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영남대, 원광대, 전주대, 청주대, 공주사대에 한문교육과가 설치돼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한문학 전문연구자의 배출은 커녕 중고교에서의 기초적인 한문교육을 담당할 만한 교사인력도 태부족한 형편이다. 지난 달 18일의 한국한문교

육연구회에서 발표된 申用浩교수(공주사대)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중고교 한문교사 중 한문전공자는 1/3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나마 부산, 경남, 제주, 전남 등 한문교육과가 설치된 대학이 없는 지역은 한문전공자가 10%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한다.

말하자면, 이 모든 사정들은 한문학에 대한 최근의 체고된 관심들과 동떨어진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한문학을 위한 저변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이다.

한국적 인문교양의 뿌리

그러나, 어쨌든 이같이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문학에 대한 연구와 번역이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 활기를 지속시켜줄 만한 기반은 아직 굳지 못하지만, 한문학에 대한 체고된 관심이 역으로 그런 기반을 굳건히 하는 데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한문학은 오늘날 그것이 연구되고 번역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에 앞서 역사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실재했다는 사실이 먼저 중시되어야 한다. 유럽에서의 라틴어문학이 유럽인의 인문교양에서 가장 밑동을 차지하는 것처럼, 한국한문학도 우리의 정신사나 문화사의 뿌리로서 실재했다. 혹은 나아가 근대 이전까지 이르는 한문학사의 길이를 생각할 때, 그것은 어쩌면 우리 문화의 중요한 줄기일 수도 있다. 따라서 한문학 유산에 대한 학문적 조망과 번역을 통한 재창조 작업은 당위 이전의 현재적 과제로 부과돼 있다.

한국한문학에 대한 최근의 연구 및 번역은 그런 점에서 더욱 본격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문학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전제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 문화 전체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강철주 기자